○ 權, 然後知輕重, 度, 然後知長短. 物皆然, 心爲甚.(≪孟子.梁惠王上≫)

【해석】

무게를 달아본 연후에야 경중을 알 수 있고, 길이를 재본 연후에야 장단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사물이 다 그렇습니다만, 마음은 특히 더 심합니다.(≪맹자·양혜왕상≫)

○ 孟子曰:「魚我所欲也, 熊掌亦我所欲也, 二者不可得兼, 舍魚而取熊掌者也. 生亦我所欲也, 義亦我所欲也, 二者不可得兼, 舍生而取義者也. 生亦我所欲, 所欲有甚於生者, 故不爲苟得也; 死亦我所惡, 所惡有甚於死者, 故患有所不辟也. 如使人之所欲莫甚於生, 則凡可以得生者, 何不用也? 使人之所惡莫甚於死者, 則凡可以辟患者, 何不爲也? 由是則生而有不用也, 由是則可以辟患而有不爲也, 是故所欲有甚於生者, 所惡有甚於死者. 非獨賢者有是心也, 人皆有之, 賢者能勿喪耳. 一簞食, 一豆羹, 得之則生, 弗得則死, 嘑爾而與之, 行道之人弗受, 蹴爾而與之, 乞人不屑也, 萬鍾則不辯禮義而受之. 萬鍾於我何加焉? 爲宮室之美 妻妾之奉 所識窮乏者得我與? 鄉爲身死而不受, 今爲宮室之美爲之, 鄉爲身死而不受, 今爲妻妾之奉爲之, 鄉爲身死而不受, 今爲所識窮乏者得我而爲之, 是亦不可以已乎? 此之謂失其本心.」(≪孟子.告子上≫)

【해석】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생선 요리도 내가 좋아하는 것이고 곰발바닥 요리도 내가 좋아하는 것이지만, 두 가지를 다 먹을 수 없다면 생선 요리보다는 곰발바닥 요리을 먹겠다. 삶도 나에게 소중한

것이고 의로움도 나에게 소중한 것이지만, 두 가지를 다 얻을 수 없다면 삶보다는 의로움을 취하겠다. 삶이 비록 소중한 것이기는 하나 삶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기 때문에 구차히 살려 하지 않는 것이며, 죽음이 비록 싫은 것이기는 하나 죽음보다 더 싫은 것이 있기 때문에 피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만일 사람이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 중에 삶보다 더한 것이 없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살려고 하지 않겠는가? 만일 사람이 싫어하는 것 중에 죽음보다 더한 것이 없다면 무슨 짓을 해서라도 피하려고 하지 않겠는가? 이와 같다면 아무리 살 수 있다 해도 쓰지 않는 수단이 있고, 환란을 피할 수 있다 해도 하지 않는 짓이 있고, 이런 까닭에 삶보다 더 원하는 것이 있고, 죽음보다 더 싫어하는 것이 있는 것이다. 이런 마음은 현자들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갖고 있다. 다만 현자는 그것을 상실하지 않은 것뿐이다.

밥 한 그릇 국 한 사발을 지금 당장 얻어먹으면 살고 그렇지 못하면 죽는다 해도, 혀를 차고 욕을 하면서 주면 길 가는 사람도 받지 않고, 발로 차고 짓밟으면서 주면 걸인도 달가워하지 않는데, 만종(萬鍾)은 예(禮)와 의(義)를 따지지도 않고 받는다. 만종이 내게 무엇을 더해줄 수 있는가? 궁실의 화려함과 처첩의 받듦과 잘 아는 궁핍한 자들이 내게 고마워함 때문인가? 아까는 자신이 죽을 수 있음에도 받지 않았는데 이제는 궁실의 화려함을 위해 그 짓을 하고, 아까는 자신이 죽을 수 있음에도 받지 않았는데 이제는 처첩의 받듦을 위해 그 짓을 하며, 아까는 자신이 죽을 수 있음에도 받지 않았는데 이제는 잘 아는 궁핍한 자들이 내게 고마워함을 위해 그 짓을 한다니, 이것이 어찌 어쩔 수 없는 것이겠는가? 이를 일러 그 본심을 잃은 것이라 한다."(이상 ≪맹자·고자상≫)

○ 孟子曰:「求則得之, 舍則失之, 是求有益於得也, 求在我者也. 求之有道, 得之有命, 是求無益於得也, 求在外者也.」(≪孟子.盡心上≫)

【해석】

맹자(孟子)가 말했다. "구하면 얻고 버리면 잃는 것이 있다. 이러한 구함은 얻는 데 유익하나니, 내게 있는 것을 구하기 때문이다. 구하는 데 도(道)가 있고 얻는 데 명(命)이 있는 것이 있다. 이러한 구함은 얻는 데 무익하나니, 외부에 있는 것을 구하기 때문이다."(≪맹자·진심상≫)

齊人有一妻一妾而處室者, 其良人出, 則必饜酒肉而後反. 其妻問所與飮食者, 則盡富貴也. 其妻告其妾曰:「良人出, 則必饜酒肉而後反, 問其與飮食者, 盡富貴也, 而未嘗有顯者來, 吾將瞷良人之所之也.」蚤起, 施從良人之所之, 徧國中無與立談者. 卒之東郭墦間, 之祭者, 乞其餘, 不足, 又顧而之他, 此其爲饜足之道也. 其妻歸, 告其妾, 曰:「良人者, 所仰望而終身也, 今若此.」與其妾訕其良人, 而相泣於中庭, 而良人未之知也, 施施從外來, 驕其妻妾.

由君子觀之, 則人之所以求富貴利達者, 其妻妾不羞也, 而不相泣者, 幾希矣. (≪孟子.離婁下≫)

【해석】

제(齊)나라 사람 중에 처와 첩을 두고 한 집에 사는 사람이 있었다. 그 남편은 외출을 하기만 하면 반드시 술과 고기를 실컷 먹고 돌아왔다. 그 처가 누구랑 마시고 먹었는지를 물어보면, (남편이 말하는 사람들은) 모두 부자이거나 귀한 사람들이었다. 하루는 처가 첩에게 말했다. "남편이 외출을 하기만 하면 반드시 술과 고기를 실컷 먹고 돌아오는데, 누구랑 마시고 먹었는지를 물어보면 모두 부자이거나 귀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한 번도 유명한 사람들이 찾아온 적이 없다. 그러니 내가 남편이 가는 곳을 몰래 따라가 봐야겠다." 어느 날 일찍 일어난 처는 남편이 가는 곳을 몰래 따라갔는데, 온 도성을 돌아다녀도 더불어 서서 이야기하는 사람도 없

었다. 마침내 동쪽 성곽 공동묘지에서 제사지내는 사람들에게 가서 남은 음식을 빌어먹고, 부족하면 또다시 다른 곳으로 갔다. 이것이 그가 실컷 먹고 마시는 방법이었다. 처가 돌아와서 첩에게 말했다. "남편이란 평생 동안 우러르고 바라볼 사람인데, 이 모양이다"라고 하면서, 첩과 함께 남편을 원망하고 마당 한 가운데서 서로 붙들고 울었다. 남편은 그런 줄도 모르고 털레털레 들어와 처와 첩에게 교만을 부렸다.

군자(君子)의 관점에서 보면, 부귀와 이익과 영달을 구하는 자 치고 그 처와 첩이 부끄러워하지 않거나 서로 붙들고 울지 않을 사람이 거의 드물다.(≪맹자·이루하≫)

○ 孟子曰:「人不可以無恥, 無恥之恥, 無恥矣.」(≪孟子.盡心上≫)

【해석】

맹자(孟子)가 말했다. "사람이라면 부끄러움이 없어서는 안 된다. 부끄러움이 없는 것을 부끄러워한다면 부끄러울 일이 없을 것이다."(≪맹자·진심상≫)

○ 孟子曰:「有天爵者, 有人爵者. 仁義忠信, 樂善不倦, 此天爵也, 公卿大夫, 此人爵也. 古之人修其天爵, 而人爵從之. 今之人修其天爵, 以要人爵, 旣得人爵, 而棄其天爵, 則或[惑]之甚者也, 終亦必亡而已矣.」(≪孟子.告子上≫)

【해석】

맹자(孟子)가 말했다. "천작(天爵: 하늘이 부여한 작위)이 있고, 인작(人爵: 사람이 만든 작위)이 있

다. 인(仁)·의(義)·충(忠)·신(信) 등은 천작이고, 공(公)·경(卿)·대부(大夫) 등은 인작이다. 옛날 사람들은 천작을 닦았으나 인작이 뒤따랐고, 오늘날 사람들은 천작을 닦아서 인작을 구하고 인작을 얻고 나면 천작은 버리니, 미혹됨이 몹시 심한 것으로 끝내는 필시 멸망할 것이다."(≪맹자·고자상≫)

○ 孟子曰:「欲貴者, 人之同心也. 人人有貴於己者, 弗思耳矣. 人之所貴者, 非良貴也. 趙孟之所貴, 趙孟能賤之.」(≪孟子.告子上≫)

【해석】

맹자(孟子)가 말했다. "귀하게 되고 싶은 것은 모든 사람들의 똑 같은 마음이다. 사람들마다 자기 자신에게 귀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 생각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귀하다고 여기는 것은 진실로 귀한 것이 아니다. 조맹(趙孟)이 귀하게 해준 것은 조맹이 천하게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맹자·고자상≫)

○ 孟子曰:「拱把之桐梓, 人苟欲生之, 皆知所以養之者. 至於身, 而不知所以養之者. 豈愛身不若桐梓哉? 弗思甚也.」(≪孟子.告子上≫)

【해석】

맹자(孟子)가 말했다. "두 손으로 모아 쥐거나 한 손으로 쥘 만한 크기의 오동나무나 가래나무는 사람들이 키우고자 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길러야 하는지 모두 안다. 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길러야 하는지를 모른다. 이것이 어찌 자기 자신을 사랑함이 오동나무나 가래나무보다 못

해서이겠는가? 생각하지 않음이 심해서이다."(≪맹자·고자상≫)

○ 孟子曰:「今有無名之指屈而不信, 非疾痛害事也, 如有能信之者, 則不遠秦楚之路, 爲指之不若人也. 指不若人, 則知惡之, 心不若人, 則不知惡, 此之謂不知類也.」(≪孟子.告子上≫)

【해석】

맹자(孟子)가 말했다. "여기 무명지가 굽혀져서 펴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자. 몹시 아프거나 일을 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도 아니지만, 굽혀진 무명지를 펴줄 수 있는 이가 있기만 하다면 진(秦)나라나 초(楚)나라도 멀다 여기지 않고 찾아갈 것이다. 이는 손가락이 남들과 같지 않기 때문이다. 손가락이 남과 같지 않는 것은 싫어할 줄 알면서, 마음이 남과 같지 않은 것은 싫어할 줄 모른다면, 이를 일러 무엇이 더 소중하고 덜 소중한지를 모르는 것이라 한다."(≪맹자·고자상≫)

○ 君子有終身之憂, 無一朝之患也. 乃若所憂則有之, 舜, 人也, 我, 亦人也. 舜爲法於天下, 可傳於後世, 我由未免爲鄕人也, 是則可憂也. 憂之如何? 如舜而已矣. 若夫君子所患則亡矣. 非仁無爲也, 非禮無行也. 如有一朝之患, 則君子不患矣.」(≪孟子.離婁下≫)

【해석】

군자(君子)는 종신토록 지녀야 할 근심은 있어도 하루아침의 걱정은 없다. 종신토록 지녀야 할 근심이란, '순(舜)임금도 사람이고 나 또한 사람인데, 순임금은 천하에 법이 된 것은 물론 후세에까지

전해지는 분이 되셨거늘, 나는 시골사람을 면치 못하였으니 이는 근심할 만한 것이다. 근심한다면 어찌 해야 하는가? 순임금처럼 하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은 없다. 군자가 걱정해야 할 것은 없다. 인(仁)이 아니면 하지 않고 예(禮)가 아니면 행치 않으니, 설령 하루아침의 걱정거리가 있다 해도 군자는 걱정하지 않는다. (≪맹자·이루하≫ 중에서)

○ 體有貴賤, 有大小. 無以小害大, 無以賤害貴. 養其小者爲小人, 養其大者爲大人.(≪孟子.告子上≫)

【해석】

몸에도 귀한 것과 천한 것이 있고, 큰 것과 작은 것이 있다. 작은 것으로 큰 것을 해쳐서는 안 되며, 천한 것으로 귀한 것을 해쳐서도 안 된다. 그 작은 것을 기르는 자는 소인(小人)이 되는 것이고, 그 큰 것을 기르는 자는 대인(大人)이 되는 것이다. (≪맹자·고자상≫)

○ 公都子問曰:「鈞是人也, 或爲大人, 或爲小人, 何也.」 孟子曰:「從其大體爲大人, 從其小體爲小人.」 曰:「鈞是人也, 或從其大體, 或從其小體, 何也?」 曰:「耳目之官不思, 而蔽於物. 物交物. 則引之而已矣. 心之官則思, 思則得之, 不思則不得也. 此天之所與我者. 先立乎其大者, 則其小者不能奪也. 此爲大人而已矣.」(≪孟子.告子上≫)

【해석】

공도자(公都子)가 물었다. "다 같은 사람인데 누구는 대인(大人)이 되고 누구는 소인(小人)이 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맹자(孟子)가 말했다. "큰 몸(大體)을 따르면 대인이 되고, 작은 몸(小體)을 따르면 소인이 되는 것이다."

(공도자) "다 같은 사람인데 누구는 큰 몸을 따르고 누구는 작은 몸을 따르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맹자) "귀나 눈과 같은 감각기관은 생각을 하지 못하므로 사물에 가림을 당한다. 사물이 사물과 사귀게 되면 상대방을 끌어당기고야 만다. 이에 반해 마음이라는 기관은 생각을 한다. 생각을 하면 얻게 되고, 생각을 하지 않으면 얻지 못한다. 이것이야말로 하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먼저 그 큰 것을 세워놓으면 그 작은 것이 빼앗지 못하나니, 이리하면 대인이 되고야 말 것이다."(≪맹자·고자상≫)

○ 王子墊問曰:「士何事?」 孟子曰:「尙志.」 曰:「何謂尙志?」 曰:「仁義而已矣. 殺一無罪非仁也, 非其有而取之非義也. 居惡在? 仁是也, 路惡在? 義是也. 居仁由義, 大人之事備矣.」(≪孟子.盡心上≫)

【해석】

왕자인 지(墊)가 물었다. "선비란 어떤 일을 합니까?"

맹자(孟子)께서 말씀하셨다. "뜻[志]을 고상하게 합니다."

지(墊): "뜻을 고상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맹자: "인(仁)과 의(義)일 따름입니다. 죄 없는 한 사람을 죽이는 것도 인(仁)이 아니고, 자기 것이 아닌데도 취하는 것이 의(義)가 아닙니다. 거해야 할 곳이 어디인가? 그곳은 바로 인(仁)이고, 가야 할 길이 어디인가? 그 길은 바로 의(義)입니다. 인(仁)에 거하고 의(義)를 말미암는다면 대인(大人)

의 일은 완비됩니다."(≪맹자·진심상≫)

○ 景春曰:「公孫衍　張儀豈不誠大丈夫哉? 一怒而諸侯懼, 安居而天下熄.」孟子曰:「是焉得爲大丈夫乎? 子未學禮乎? 丈夫之冠也, 父命之, 女子之嫁也, 母命之, 往送之門, 戒之曰: □往之女家, 必敬必戒, 無違夫子!□ 以順爲正者, 妾婦之道也. 居天下之廣居, 立天下之正位, 行天下之大道, 得志, 與民由之, 不得志, 獨行其道. 富貴不能淫, 貧賤不能移, 威武不能屈, 此之謂大丈夫.」(≪孟子.滕文公下≫)

【해석】

경춘(景春)이 말했다. "공손연(公孫衍)이나 장의(張儀)는 진정한 대장부(大丈夫)가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한 번 노여워하면 제후들이 두려움에 떨고, 편안히 있으면 천하가 조용하니 말입니다."

맹자(孟子)께서 말씀하셨다. "이 어찌 대장부라 할 수 있겠소? 그대는 예(禮)를 배우지 못하였소? 아들이 관례를 치를 때는 아버지가 명하고, 딸이 시집을 갈 때는 어머니가 명합니다. 대문까지 나와 전송을 하면서 경계하기를 '이제 너의 집으로 가거든 반드시 공경하고 조심하여 남편의 뜻에 어김이 없도록 하라'고 하나니 '순함'을 바른 도리로 삼는 것은 아녀자의 도리이다. 하늘 아래 가장 드넓은 거처에 거하고, 하늘 아래 가장 바른 자리에 서며, 하늘 아래 가장 큰 길을 걸어가되, 뜻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면 백성들과 더불어 그 길을 가고, 얻지 못한다면 혼자 그 길을 간다. 부귀(富貴)도 흔들지 못하고, 빈천(貧賤)도 바꾸지 못하며, 위무(威武)도 굽힐 수 없는 이런 사람을 대장부(大丈夫)라고 한다."(≪맹자·등문공하≫)

○「敢問何謂浩然之氣?」曰:「難言也. 其爲氣也, 至大至剛, 以直養而無害, 則塞於天地之間. 其爲氣也, 配義與道, 無是, 餒也. 是集義所生者, 非義襲而取之也. 行有不慊於心, 則餒矣.」(≪孟子.公孫丑上≫)

【해석】

공손추(公孫丑): "감히 여쭙습니다. 호연지기(浩然之氣)란 무엇을 말합니까?"

맹자(孟子): "말로 설명하기 어렵다. 호연지기(浩然之氣)라는 기(氣)는 지극히 크고 지극히 굳세며, '곧음[直]'으로 길러 해함이 없으면 하늘과 땅 사이를 메운다. 호연지기(浩然之氣)라는 기(氣)는 '의(義)'나 '도(道)' 등과 짝하며, 이것이 없으면 움츠러든다. 이것은 '의(義)'를 꾸준히 모았을 때 생성되는 것이며, '의(義)'가 들이닥쳐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떤 행위를 하고 마음에 만족스럽지 않은 구석이 있으면 움츠러들게 된다."(≪맹자·공손추상≫)